

##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관점에서 본 외국인노동자문제\*

최창근\*\*

### 요 약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관점이다. 먼저,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주잉여를 측정한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효과는 외생적 및 내생적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분석결과 외국인을 유입하되 단순·미숙련보다는 전문·숙련근로자들이 유입되어야 이주잉여를 크게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적 경제성장모형에 따르면 내국인보다 낮은 자본수준을 보유한 외국인의 유입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투자의 학습효과를 강조한 내생성장모형에 따르면 외국인의 유입이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외국근로자들이 보유한 자본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의 이주 결정모형을 기초로 하여 전문·숙련근로자가 유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한다. Roy 의 이주결정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전문·숙련근로자들이 한국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핵심주제어 : 외국인 근로자, 이민 잉여, 기업 및 국가경쟁력, 이민과 경제성장, 로이모형

\* 논문접수일 2009년 8월 14일, 게재확정일 2009년 9월 15일  
\* 본 연구는 학술진흥재단과 한국산업경제저널에서 정한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함  
\* 본 연구는 2007년 산학협동재단의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임  
\*\*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ckchoi@jbnu.ac.kr)

## I. 서론

외국인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주제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인력유출국에서 근로자들의 이민결정요인들에 대한 연구이다. 근로자들의 이민결정요인은 유출국과 유입국의 인적자본에 대한 임금분포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두 번째는 외국인력의 유입결과 인력 유입국의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그 효과는 인력유입국과 유출국사이의 노동력의 상대적 기술수준의 차이에 따라 다르게 된다.

외국인노동자의 유입문제는 한국경제가 성장하면서 대부분의 국가가 경험하는 것으로 이제 한국경제도 외국인노동자유입문제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만이 아닌 상황이 되었고,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국가들의 경험에 비추고 또한 우리 한국경제에 맞는 가장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처지에 와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 인식에 입각하여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무엇인지, 한국경제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무엇인지, 그 정책들이 한국경제의 효율성, 즉 경쟁력에 줄 효과는 무엇인지를 논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분석하면서 본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기업 및 국가경쟁력의 관점이다.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것처럼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 정말로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로 부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는지, 또는 단기적으로 일시적인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가 등의 관점에서 문제를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신중한 분석을 요하는 것이 일자리부족문제가 심각한 한국경제에 외국인노동자가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는 것과, 필요하다면 어느 부류의 노동자가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다. 노동력의 공급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라면 노동력공급은 외국인노동력의 유입만이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다. 예를 들어 국내의 유희노동력을 활용하거나, 또는 노동력의 질을 향상시켜서 유효노동력을 증가시키거나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력을 대신하여 자본의 투입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방법 등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하는 일의 대부분이 단순한 미숙련공들의 업무라는 점은 정부에서 그러한 업무를 자동화를 통하여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욱 효율적일 수도 있다.

만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효율적이라면 어떠한 관점에서 효율적인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본 연구는 두 가지 관점, 즉, 단기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은 세계경제질서에서 자본시장의 개방에 이어 논의가 될 노동시장의 개방문제인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인식제고와 정책설정에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예를 들어, 외국인력의 유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그 동안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결과 한국의 기업들은 인재난과 숙련기술자의 부족과 기술전수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다. 저임금의 일자리에 국내근로자들은 일자리를 기피하고 그 일자리를 외국인의 저렴한 인력이 충원되어 대신하였지만 외국인근로자들 대부분은 단순업무에만 종사했지 그들은 높은 숙련도가 요구하는 업무에는 적절하지 않았고 그 결과 숙련도가 요구되는 고도의 기술전수가 되지 않게 되어 기술전수나 개발의 맥이 단절되었다는 것이다. 즉, 단순노동력의 무분별한 유입결과 최근에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기술숙련도가 떨어졌음을 지적하고 있다.<sup>1)</sup> 실제로 일부국가 - 싱가포르, 대만 등 -에서는 자국에서의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미숙련근로자의 유입에는 일정한 제약을 가하고 숙련근로자의 유입은 권장하는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Borja(1999a)는 외국인 근로자 또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최근의 연구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다. 이전의 연구에 대한 결과는 Abowd and Card (199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Borja(1999b)는 미국내의 외국인 근로자들을 출신국가별로 그 특징을 분석하고 왜 출신국가별로 정착과정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는 그 차이를 인종자본(Ethnic capital)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설명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인 분석은 균형노동시장모형을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유입이 단기적으로 고용 및 임금에 주는 효과를 보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어떠한 효과를 줄 것인지를 분석한다. 부가적으로 현재 한국노동시장에서 외국인노동자유입현황, 그동안의 유입효과, 다른 국가의 노동유입정책의 예와 그에 따른 효과 등에 대한 조사 등을 포함한다. 논의 과정에서 노동자유입의 효과는 노동시장에서의 고용이나 임금 외에, 노동시장에서 추정된 노동수요탄력성을 이용하여 외국인노동자유입의 이민잉여(Immigration Surplus)를 계산하여 실제로 노동자유입이 한국경제에 주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한다. 즉, 한국의 국내노동자들은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이나 편익을 얻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또한 그러한 이민잉여는 외국인노동자유입정책이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장기적으로 한국노동시장에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계속된다면 경제성장에 주는 효과를 경제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그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을 제시한다. 분석결과 외국인을 유입하되 단순 ■ 미숙련보다는 전문 ■ 숙련근로자들이 유입되어야 이주잉여를 크게 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생적 경제성장모형에 따르면 내국인보다 낮은 자본수준을 보유한 외국인의 유입은 경제성장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에 투자의 학습효과를 강조한 내생성장모형에 따르면 외국인의

1) 중소기업중앙회(2006)

유입이 경제성장에 정의 효과를 줄 수 있지만 외국근로자들이 보유한 자본수준이 높을수록 그 효과는 더욱 커짐을 알 수 있었다. 외국근로자들의 이주 결정모형을 기초로 하여 전문숙련근로자가 유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방향을 검토한다. Roy의 이주결정모형의 분석에 따르면 무엇보다도 전문·숙련근로자들이 한국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한다.

이하에서 본고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II 장에서는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제도 및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요약한다. III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결과 국내 기업 및 경제에서 발생하는 이민잉여의 크기를 측정한다. IV 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Solow 모형과 내생적 성장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 V 장에서는 근로자의 이주결정에 대한 Roy 모형을 기초로 하여 한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외국인 근로자정책이 무엇인지를 논의한다. VI 장은 논문을 맺는다.

## II. 외국인 근로자의 제도 및 현황

### 2.1 외국인 근로자관련 제도 및 현황

한국에서 외국인력의 도입에 대한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먼저,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로써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으로서 1년간의 연수를 마치고 해당업체 또는 적정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에서 2년간 취업하는 제도이다.<sup>2)</sup> 두 번째는 해외투자기업연수생제도가 있는데 이는 해외투자업체의 현지고용인력의 기능향상과 산업설비 수출업체 등의 해외기술이전을 위해 현지법인의 종업원을 초청하여 국내기업에서 연수를 시키는 제도로 1991년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세 번째로 전문기술인력에 대한 제도로써 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업 등의 경우 체류자격을 인정받아 국내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이다. 끝으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고용허가제도가 있는데,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취업기간은 3년으로 제한되고 가족동반은 금지한다. 근로자와 사업주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고 사업주는 출국만기·보증보험을 근로자는 귀국비용·상해비용가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내국인과 동등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등의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고용보험 등의 4대사회보험을 적용한다.<sup>3)</sup>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는 대로 고용허가제하의 외국인취업자수는

2)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출입국시행령을 개정하여 연수취업기간과 취업기간의 조정이 있었음.

13만3천여명이다. 특히, 2004년과 2005년 12월 사이에 거의 1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고용허가제의 5만7천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중에서 5만 6천여명 정도가 제조업에 취업증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한국국적의 외국동포를 대상으로 한 특례고용허가제하의 취업자는 7만 5천여명이고 그 중 대부분이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취업중이다.

<표 1> 외국인 고용허가 현황

(단위 명)

구 분	'04.12	'05.12	'06. 2	'06. 4	'06. 5	'06. 6	'06. 7	'06. 8
총 계	7,095	67,568	86,627	106,333	115,123	122,740	129,278	133,506
일반고용허가제	3,167	34,826	42,997	50,228	52,947	54,843	56,122	57,850
특례고용허가제	3,928	32,742	43,630	56,105	62,176	67,897	73,156	75,656

<표 2> 산업별 고용현황

구 분	연도별	2004년	2005년	2006년								총 계
				소계	1월	2월	3월	5월	6월	7월	8월	
취업현황(총계)		7,095	60,473	65,398	8,718	10,341	10,375	8,790	7,617	6,538	4,228	133,506
일 반 고 용 허 가 제	소 계	3,167	31,659	23,024	3,781	4,390	4,439	2,719	1,896	1,279	1,728	57,850
	제 조 업	3,124	31,115	22,615	3,742	4,349	4,381	2,667	1,855	1,230	1,661	56,854
	건 설 업	0	84	34	0	10	1	0	15	0	8	118
	농축산업	43	419	339	37	28	41	52	26	35	58	801
	서비스업	0	41	36	2	3	16	0	0	14	1	77
	어 업	-	-	-	-	-	-	-	-	-	-	-
특 례 고 용 허 가 제	소 계	3,928	28,814	42,914	4,937	5,951	5,936	6,071	5,721	5,259	2,500	75,656
	제 조 업	-	-	6,692	168	607	1,006	1,096	950	780	873	6,692
	건 설 업	2,514	18,072	20,803	3,312	3,678	2,593	2,574	2,912	2,963	-	41,389
	농축산업	-	-	514	6	32	61	90	100	55	96	514
	서비스업	1,414	10,742	14,894	1,451	1,634	2,276	2,305	1,756	1,461	1,529	27,050
	어 업	-	-	11	-	-	-	6	3	0	2	11

3) 외국의 경우,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은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고 반면에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노동허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두 제도의 큰 차이점은 근로자의 사업장이동이 자유로운 가이다. 고용허가제에서는 원칙적으로 자유롭지 않다.

## 2.2 외국의 제도

이 절에서는 일부 외국에서의 외국인 근로자관련제도를 개괄적으로 요약한다. 먼저, 일본은 1989년 이후 전문직 기술직 노동자는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단순노동자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을 견지하고 있다.<sup>4)</sup> 하지만 이러한 정책기조도 최근의 출산율저하현상이 심각한 상황에서 재 검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05년에서 2009년까지 일본의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간 최대 156만명의 이민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민유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찬반의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은 이외에도 한국의 중국내 동포와 같이 남미지역의 일본계 노동자들이 상당수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다.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대책은 2000년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 대만내의 실업률 증가와 정치적인 변화(민주진보당의 승리)로 인하여 1990년대에 지속되어온 외국인 인력의 유입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였다. 그 결과 외국인력의 유입이 감소하였으나 그 정책은 고용주로부터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다.<sup>5)</sup> 민진당은 유입억제와 동시에 다른 정책들을 시행하였는데, 첫째는 외국인 근로자의 법적인 권한과 보호에 관심을 증가시켰다. 두 번째는 기업이 외국인을 고용하면서 고용주가 내는 세금인 고용안정화비용(Employment Stabilization Fee)을 대폭 인상하였다. 세 번째는 2002년부터 외국인 근로자가 하루 이상 대만에서 출국해 있으면 추가로 3년을 재고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로는 지방정부들이 불법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작업장을 단속하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싱가포르를 잘 알고 있는대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이 높은 국가로서 전체노동인구 중 30% 정도가 외국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력을 많이 수입하는 것에 비하여 나름대로 오래전부터 선별적인 인력수입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즉, 숙련과 미숙련근로자에 대하여 선별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으로 숙련 또는 전문인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력을 수입하려 하지만 미숙련 또는 단순노동자들의 유입은 억제하고 있다.

대표적인 이민국가인 미국의 경우는 한마디로 요약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는 이민역사와 제도 및 특징을 갖고 있다. 그런 중에도 큰 구분은 가족관계에 의한 초청과 전문인력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다는 특징을 지적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은 많은 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주에서 외국인력유입에 대한 동일한 정책이나 자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내에서도 외국인력의 유입이 가장 왕성한 지역은 캘리포니아이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에서는 주민 4명중 1명이 외국이민출신이다.<sup>6)</sup> 이민인력 중에서 50%는 멕시코와 중

4) 일본의 예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구치 야스시(2003)를 참고.

5) 2000년말에 326000여명이었던 외국인력이 2003년에는 2970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란키정(2003) 참고.

앙아메리카출신이고 다른 1/3은 아시아출신이다. McCarthy와 Vernez(1998)는 전반적으로 평가를 한다면 캘리포니아는 이민인력유입으로부터 이익을 보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 III. 외국인 근로자유입의 효과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기업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기업의 생산비용을 감소시켜주거나 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켜 주는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 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생산비용이나 생산성에 미치는 직접적인 또는 개별적인 효과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한 지표로서 이주잉여(Immigration Surplus)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주잉여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하여 국내 기업이나 경제에 사후적으로 발생하는 편익을 의미한다. 당연히 잉여가 클수록 기업이나 국가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

#### 3.1 이주잉여의 추정: 동질적인 노동

외국인 유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이주잉여를 측정한 Borjas(1995, 1999)에 따르면 국민 총소득대비 이민잉여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추정될 수 있다

$$\frac{IS}{Y} = -\frac{1}{2} \alpha_N \varepsilon_{NV} \left( \frac{F}{N} \right) \quad (1)$$

여기에서  $IS$  는 이민잉여의 크기,  $Y$  는 GDP를 나타내고,  $\alpha_N$  은 노동소득분배율,  $\varepsilon_{NV}$  은 노동수요탄력성이고  $F$  는 외국인 근로자수,  $N$  은 국내의 총근로자수(내국인 + 외국인)이다. 노동소득분배율을 0.6, 노동수요탄력성을 -0.2, 외국인근로자비율을 2% (즉, 0.02) 라고 전제한다면<sup>7)</sup> 이민잉여의 비율은 0.0024%가 된다. GDP의 0.0024%는 9600억원이 된다.<sup>8)</sup>

6) McCarthy and Vernez(1998) 참고. 미국내에서 캘리포니아는 이민인구의 유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하나의 실험장의 역할로서 주목받고 있다. "California is a Test case for National Immigration Policy".

7) 노동소득분배율은 통계작성방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60% 정도로 볼 수 있고, 노동수요탄력성에 대한 것은 다른 나라의 연구에 준하여 설정한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비율은 외국인근로자를 40만명으로 보고 취업자수 2000 만명대비 비율을 사용한 것이다.

8) Borjas(1995)는 미국의 이민잉여가 0.1% 정도라고 추정하였다. 미국에서의 잉여가 한국보다 높

이상의 추정은 동질적인 노동력을 전제로 한 분석결과로서 현실적으로 다양한 이질적인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 이질적인 노동력을 전제하고 외국인 근로자유입이 이주잉여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한다. 예를 들어, 이주잉여는 만일 유입국의 노동력의 기술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다면 서로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먼저, 숙련근로자에 보완적인 미숙련근로자가 유입된다면 잉여를 크게 할 수 있다. 반면에 다른 관점에서는 자본에 보다 보완적인 숙련근로자가 유입된다면 잉여를 크게 할 수 있다.

### 3.2 이주잉여추정: 이질적인 노동

먼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생산함수의 구조에서 생산을 한다고 가정하자.<sup>9)</sup>

$$Y = G(K, N) = G(K, N_S + N_U) \quad (2)$$

생산함수에서 노동력을 숙련과 미숙련근로자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숙련근로자와 미숙련 근로자들은 내국근로자(=  $D$ )와 외국근로자(=  $F$ )로 구성된다 :  $N_S = \theta_D D + \theta_F F$ . 또한  $N_U = (1 - \theta_D)D + (1 - \theta_F)F$ 이다.  $\theta_i$ 는 내국근로자(=  $D$ )와 외국근로자(=  $F$ )들 중에서 숙련근로자의 비율이다. 생산함수는 일반적으로 가정되는 1, 2차 도함수 조건을 만족시킨다 :  $G_i > 0$   $G_{ii} < 0$   $i = K, N_S, N_U$ . 외국근로자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근로자의 유입에 대하여 자본스톡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먼저, 자본의 공급이 완전탄력적인 경우를 보고 그 반대인 경우를 논의한다.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조건은 다음과 같다.

$$r = G_K(K, N_S, N_U) \quad (3)$$

$$w_S = G_{N_S}(K, N_S, N_U) \quad (4)$$

$$w_U = G_{N_U}(K, N_S, N_U) \quad (5)$$

계 나온 이유는 노동소득분배율(미국 70%)이나 노동수요탄력성(-0.3)의 차이보다 취업자대비 외국인 근로자비율(미국 10%)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이다. 노동수요탄력성에 대한 연구는 Hamermesh(1992) 참고.

9) 이절의 논의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Borjas(1995)를 참고

자본이 완전탄력적이면 이자율은 변하지 않게 되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자본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킨다.

$$\frac{dK}{dF} = - \frac{[G_{KN_s} \theta_F + G_{KN_U} (1 - \theta_F)]}{G_{KK}} \quad (6)$$

이 조건을 이용하여 외국인력의 유입이 내국의 숙련근로자와 비숙련 근로자의 임금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의 탄력성으로 표현된다.

$$\varepsilon_F^{W_s} = \frac{\alpha_{N_s}}{c_{KK}} [c_{SS} c_{KK} - c_{SK}^2] \frac{(\theta_F - \theta_D)}{n_S n_U} (1 - n_F) n_F \quad (7)$$

$$\varepsilon_F^{W_U} = \frac{-\alpha_{N_U}}{c_{KK}} [c_{UU} c_{KK} - c_{UK}^2] \frac{(\theta_F - \theta_D)}{n_S n_U} (1 - n_F) n_F \quad (8)$$

여기에서  $c_{ij} = \frac{G_i G_j}{G_i G_j}$ ,  $n_S = \frac{N_S}{N}$ ,  $n_U = \frac{N_U}{N}$ ,  $n_F = \frac{F}{N}$  이고,  $\alpha_i$  는 해당

요소의 소득분배율을 나타낸다.<sup>10)</sup>

위의 결과는 외국인력의 유입이 노동시장에서 숙련노동자와 미숙련노동자의 임금구조에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것은 숙련과 미숙련노동자의 비율임을 말하고 있다. 유입된 외국인력에서 숙련/미숙련인력의 비율이 내국인근로자와 동일( $\theta_D = \theta_F$ ) 하면 내국의 임금구조를 변화시키지 않는다. 하지만 그 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임금구조를 변화시키는데,  $\theta_F < \theta_D$  이면 숙련인력의 임금은 상승하지만 미숙련의 임금은 하락한다. 반대로  $\theta_F > \theta_D$  이면 숙련인력의 임금은 하락하지만 미숙련인력의 임금은 상승한다. 이 경우에서 이민잉여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0) 예를 들어,  $c_{SS}$  에서 s 는 숙련노동력을 의미함.

$$\frac{\Delta IS}{Y} = \frac{-\alpha N_s^2}{2C_{KK}} (c_{SS}c_{KK} - c_{SK}^2)(\theta_F - \theta_D)^2(1 - n_F^2)n_F^2 \quad (9)$$

여기에서 이민잉여를 극대화하는  $\theta_F$  값을 찾아볼 수 있다. 그 값은 내국인 근로자들 중에서 숙련/미숙련근로자의 비율에 따라 다르다. 만일  $\theta_D < 0.5$  (또는  $\theta_D > 0.5$ ) 라면,  $\theta_F = 1$  (또는  $\theta_F = 0$ ) 값이 이민잉여를 극대화한다. 현실적으로 이 결과의 함의는 외국인력의 숙련인력비율이 내국인과는 반대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에서 숙련근로자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하는 것은 숙련도의 객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 전체노동시장보다는 산업별로 숙련 근로자의 비율을 추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산업별 국내근로자의 숙련근로자의 비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달리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산업별로 숙련근로자의 비율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통계자료의 실증분석을 통하여 확인되어야겠지만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발전단계나 성숙도를 기준으로 볼 때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 숙련기술자의 비율이 높다고 보기 어렵고 구체적으로 산업별 총 근로자의 50% 이상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산업에서 단순 미숙련근로자보다는 전문 숙련근로자의 유입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다.

## IV. 외국인 근로자와 경제성장

본 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유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의 경제성장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 4.1 외생적 경제성장모형과 외국인 근로자

본 절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소위 Solow-Swan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한다.<sup>11)</sup> 먼저 위의 생산함수에 기술진보를 첨가하면 아래와 같다.

$$Y = G(K, AN) \quad (10)$$

11) 이절에서의 논의는 Barro, R. and Sala-i-Martin(1995) 참고.

외국인의 유입을 포함한 인구증가율은 다음과 같다.

$$\frac{\Delta N}{N} = n + \frac{F}{N} \quad (11)$$

외국인 근로자가 보유한 자본의 양을  $k_F$  라고 하면 국내자본 스톡의 축적과정은 아래와 같이 요약된다.<sup>12)</sup>

$$K = sF(K, \widehat{N}) - \delta K + k_F F \quad (12)$$

유효노동력당 자본 스톡의 증가율은 위의 두식을 이용하여 얻을 수 있다.

$$\frac{\Delta k}{k} = \frac{sg(k)}{k} - (x+n+\delta) - \frac{\Delta F}{N} \left[ 1 - \frac{k_F}{k} \right] \quad (13)$$

외국인력의 유입으로 인하여 정상상태가 변화되고 정상상태이전의 轉移動學(transitional Dynamics)과정에 변화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외국인력 유입으로 인한 자본스톡증가율의 변화는 외국인력 유입의 정도와 그들이 가져오는 자본의 양에 결정됨을 알 수 있다. 먼저 외국인력의 유입은 국내 자본스톡과 정의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자국에서의 임금보다 국내에서의 임금이 높기 때문일 것인데 자본스톡이 많을수록 임금은 증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인력이 가져오는 1인당 자본의 양은 국내의 인구 1인당 자본보다 작다고 전제하는 것은 무리가 없다:  $k_F < k$ . (13)식의 마지막 항을 다시 정의한다면 아래 (14)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v(k) = \frac{\Delta F}{N}(k) \left( 1 - \frac{k_F}{k} \right) \quad (14)$$

따라서 식(13)의 자본축적식은 보다 간략하게 표현된다.

12) 여기에서 자본은 물적자본만이 아닌 인적자본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자본을 의미할 수 있다.

$$\frac{\Delta k}{k} = \frac{-sg(k)}{k} - (x+n+\delta+\gamma(k)) \quad (15)$$

이 식의 의미는  $\gamma(k)$  가 0 이 아닌 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경제성장과정에 영향을 끼침을 알 수 있다. 먼저 정상상태의 자본스톡이 낮아지고 전이동학과정에서 성장률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상의 유도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외국 근로자의 1인당 자본 스톡이 국내 근로자의 1인당 자본 스톡보다 적은 상황에서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 4.2. 내생적 경제성장모형과 외국인근로자

본 절에서는 외국인근로자유입의 효과를 내생적 성장이론의 관점에서 논의한다. 경제에는 많은 수의 노동자 겸-소비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은 소비활동을 통해 만족을 얻고, 일정한 양의 노동력을 비탄력적으로 공급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여러 기간을 통한 선호구조는 다음과 같은 동학적 효용함수로 표현될 수 있다. 노동력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가정은 이 절에서의 분석을 상당히 간편하게 한다. 효용함수에서  $\rho$  는 시간선호율을 나타낸다.<sup>13)</sup>

$$U = \int_0^{\infty} u(c_t) e^{-\rho t} dt, \quad U(c_t) = \left[ \frac{c_t^{(1-\theta)} - 1}{(1-\theta)} \right] dt \quad (16)$$

생산과정에서 인적자본 또는 지식이 중요하고 그러한 것들을 반복적인 학습효과(Learning-by-doing)를 통하여 축적이 가능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투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술습득(Learning-by-investing)을 하여 기술이 진보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생산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어서 총생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생산된다.

$$Y_t = G[\Lambda, N_t, K_t, H_t] = \Lambda (K_t)^\alpha (H_t N_t)^{1-\alpha} \quad (17)$$

Y는 총산출량, N은 고용노동량, K는 실물자본저량을 나타내고, H는 인적자본을 의미하고

13) 첨자 t는 기간을 나타냄.

$\Lambda$  는 기술충격을 나타낸다. 인적자본의 축적은 투자의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 (Learning-by-Investment)를 통하여 축적된 된다고 가정한다.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투자결과 축적된 실물자본의 양에 인적자본이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H_t = K_t$  . 이러한 가정하에 위의 생산함수는 아래와 같다.

$$Y_t = G[\Lambda, N_t, K_t, H_t] = \Lambda (K_t)^{1-\alpha} (K_t N_t)^\alpha \quad (18)$$

노동단위당 생산함수로 치환하여 표현하면 위의 생산함수는 아래와 같은 내생성장이론의 대표적인 생산함수가 된다.<sup>14)</sup>

$$y = g(k) = \phi k \quad (19)$$

여기에서  $\phi = \Lambda N^\alpha$ ,  $y = Y/N$ ,  $k = K/N$  이다.  $\phi (>0)$ 는 자본의 한계생산을 나타내므로 한계생산은 체감하지 않고 일정하므로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한다. 이 모형경제의 자본축적은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dot{k}_t = \phi k_t - c_t \quad (20)$$

이 모형경제의 성장율을 계산하기 위하여 가계가 풀어야할 최적화문제의 현재가치 (Present value) 해밀토니안 함수를 다음과 같이 (21)식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에 따른 1차조건 및 최종(Transversality) 조건은 다음과 같다.

$$H = u(c)e^{-\rho t} + v[\phi k - c] \quad (21)$$

$$\frac{\partial H}{\partial c} = 0; \quad v = u'(c)e^{-\rho t} \quad (22)$$

14) 편의상 이하에서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나타내는 첨자 t 를 사용하지 않으며, 혼동의 우려가 없는 한 실물자본을 자본이라고 축약하여 표현한다. 또한 y 는 감가상각을 고려한 순생산(Net Product)을 의미한다.

$$\dot{v} = -\frac{\partial H}{\partial k} : \quad \dot{v} = -\phi v \quad (23)$$

$$\lim_{t \rightarrow \infty} (a_t v_t) = 0 \quad (24)$$

위의 두 조건은 다음과 같이 소비 성장률, 따라서 자본 및 GDP의 성장률을 의미한다.<sup>15)</sup>

$$\frac{\dot{c}}{c} = \frac{\dot{k}}{k} = \frac{\dot{y}}{y} = \sigma (\phi - \rho) \quad \sigma = -\frac{u'(c)}{cu''(c)} = \frac{1}{\theta} \quad (25)$$

위의 식에서 성장률의 중요결정요인인 어느 지역에서 자본의 한계생산인  $\phi$ 가 그 지역에서의 노동력의 크기에 의하여 결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phi = AN^\alpha \quad (26)$$

자본의 한계생산과 노동력의 크기와의 관계는 다음 도함수로 표현된다.

$$\frac{\partial \phi}{\partial N} = \alpha N^{(\alpha-1)} > 0 \quad (27)$$

자본의 생산성은 노동력의 규모가 클수록 크고, 그 결과 성장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생산성의 노동력규모에 대한 탄력성은  $\alpha$ 가 된다.

노동력의 크기와 경제성장간의 정의 관계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많은 인구가 기술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다. 개별적인 경제주체들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확률은 인구의 수와 무관하며, 따라서 발견의 확률은 인구가 많을수록 크게 된다. 또한 발견된

15) 자본이나 총생산도 위의 성장률에 따라 성장함을 쉽게 보일 수 있고, Ramsey 모형과 달리 轉移動學(Transitional Dynamics)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다하지만 생산함수의 변화를 통하여 전이동학이 존재하는 내생성장모형은 쉽게 전개될 수 있다. 그에 대한 것은 다른 참고문헌을 참조할 것.

기술의 사용 및 채택과정에서 발생하는 규모효과는 인구가 많을수록 크게 나타난다. 노동력의 크기는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클수록 기업들은 기술획득 및 채택의 동기가 크다는 것이다.

만일 이상에서의 분석에서 사용했던 일정한 노동력이라는 가정을 완화하고 노동력이 변화한다면, 성장률과 노동력의 변화율간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먼저 (25) 식은 (27)식을 이용하면 아래와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sup>16)</sup>

$$\dot{v}_y = \frac{\dot{y}}{y} = \sigma(AN^\alpha - \rho) \quad (25)'$$

(25) '식에서 노동력이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미분을 하면 (28)식을 얻는다.

$$\dot{v}_y = \alpha N^\alpha v_N \quad (28)$$

이 식은 경제성장률은 노동력의 크기와 노동력의 증가율(=  $v_N$ )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노동력의 지속적인 유입은 그 해당국가의 경제성장률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만일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들의 인적자본이 국내 근로자들의 인적자본보다 높다면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하나의 가능성은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외국으로 이주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보다 진취적이고 모험심이 있는 기업가적인 성향의 사람들일 수 있다.<sup>17)</sup>

### 4.3 요약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이상의 외생적 및 내생적성장이론의 관점은 서로 다른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외생적 성장이론은 외국인 근로자가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 결론을 얻게 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가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가져오는 1인당 자본의 양이 국내근로자들 1인당 자본의 양보다 적다는 가정이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가져오는 1인당 자본의 양이 국내

16) 여기에서  $v_y$  는 성장율을 나타낸다.

17) 외국인근로자유입에서 정의 선택(positive selection)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근로자의 1인당 자본의 양에 근접할수록 그 부정적 효과는 감소된다. 반면에 인적자본 축적이 투자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Learning by Investment)는 가정하의 내생성장이론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유입의 효과는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 어느 이론의 결론이 한국경제의 현실에 보다 적합한 지는 실증적인 분석의 대상일 것이다. 하지만 두 이론 모두에서 공통적인 점은 만일 외국인 근로자의 보유 자본이 높을수록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효과는 부정적인 효과보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 결과는 앞 절에서의 이민잉여에 대한 논의의 결과와 동일하다. 외국인 근로자를 유입하되 인적자본이 높은 전문가, 숙련근로자들 중심으로 유입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8)</sup>

## V. 외국인 근로자 대책에 대한 제안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유용한 외국 인력도입은 우리의 근로자보다 높은 자본(인적자본)을 보유한 근로자를 도입하는 일이다. 외국의 근로자들 중에서 양질의 또는 숙련된 근로자들이 한국에 오도록 하는 방법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외국근로자들이 이주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해하여야 한다.

### 5.1 외국인근로자의 이주결정

외국근로자들은 이주를 결정하면서 다른 경제문제에 대한 결정과 마찬가지로 이주에 따른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비교하여 결정할 것이다. 이주자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에 대한 논의는 Roy(1951)모형이 대표적이다.<sup>19)</sup> 이주 결정은 일종의 자기선택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정의 선택(Positive Selection)이나 또는 역의 선택(Negative Selection)이 발생할 수 있다. 유입국의 관점에서 정의 선택은 이주 근로자의 질(즉, 인적자본)이 유출국(Source country)이나 유입국(host country)의 평균 수준(예를 들어 근로소득으로 측정)이상의 근로자가 이동하는 경우이다.<sup>20)</sup> Roy 모형에 따르면 유입국의 관점에서 정의 선택은 유입국의 인적자본별 임금격차가 클 수록 또한 유출국의 인적자본별 임금격차가 작을수록 발생한다. 한국의 관점에서는 인적자본별 소득격차가 클 수록

18) Lazeaer(2000)는 외국인근로자의 구성이 다양할수록 다양한 지식과 아이디어의 유입이 가능하여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19) 또는 Heckman and Honore(1990), Sjastad(1962), Borjas(1999)는 기존 연구들을 정리하고 있음.

20) 즉, 정의 선택이나 또는 역의선택이냐는 유입국의 관점에서 본 것이다.

양질의 노동력을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상의 논의는 근로자들이 국가별 노동시장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 보다 적절한 것이다. 즉, 노동이동비용이 유입국과 유출국사이의 임금격차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이 된다. 만일 노동이동비용이 매우 커서 임금격차가 노동이동유인이 되지 못한 다면 적용될 수 없는 논리이다. 참고로 Roy 모형에서 이주 결정함수를 보면 아래와 같다. 유출국에서의 근로자들이 직면하는 임금(=  $W_o$ )은 (29)식으로 표현된다.

$$\log W_o = \mu_o + v_o \quad (29)$$

여기에서  $\mu_o$  는 평균임금이고  $v_o$ 는 평균임금과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규분포를 갖고 평균은  $E(v_o)=0$  이고 분산은  $Var(v_o)=\sigma_o^2$  이다. 만일 유출국의 근로자가 유입국에 이주한다면 받는 임금(=  $W_1$ )은 (30)식으로 표현된다.

$$\log W_1 = \mu_1 + v_1 \quad (30)$$

여기에서  $\mu_1$  는 평균임금이고  $v_1$ 는 평균임금과의 편차를 나타내는 것으로 정규분포를 갖고 평균은  $E(v_1)=0$  이고 분산은  $Var(v_1)=\sigma_1^2$  이다. 이주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양 국가의 임금과 노동이동비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다음 식으로 요약된다.

$$I = \log\left(\frac{W_1}{W_o + C}\right) \cong (\mu_1 - \mu_o - \pi) + (v_1 - v_o) \quad (31)$$

만일  $I > 0$  이면 해당근로자는 이동을 결정하게 된다. 이 모형을 기초로 Roy 는 인적자본 별 임금격차가 클수록 양질의 외국인력을 유입하는 데 유리하다고 결론을 맺고 있지만 현재 한국의 상황에서 보면 그러한 논의는 현실성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이 모형의 관점에서 현재 한국의 외국인력도입상황은 노동이동비용 항목인  $C$  가 매우 큰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외국인력 중 전문 또는 숙련인력의 관점에서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한 진입비용은 매우 크다는 것이다. 인적자본별 임금격차의 상대적 차이가 있다고 하여도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노동이동비용이 크기 때문에 외국의 전문 또는 숙련 인력이 한국에 유입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즉,  $C$  의

크기가 한국과 외국노동시장의 임금격차효과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이다. 전문적 또는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에게  $C$ 가 큰 이유는 한국의 해당 노동시장에서의 폐쇄성이다. 한국에서 많은 전문 또는 숙련인력의 노동시장은 상당히 폐쇄적이다. 폐쇄적인 이유는 기본적으로 제도나 규제에 기인하지만 정책담당자나 인력관리자의 인식도 중요하다.<sup>21)</sup>

## 5.2 정책적 함의

앞의 3장 및 4장에서의 분석은 기존의 단순 또는 비숙련 인력위주의 외국인력 도입에서 전문가 또는 숙련인력을 보다 많이 유입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제도 및 각종 명시적 또는 암묵적 규제는 한국노동시장으로의 노동이동비용( $(19)$ 식에서  $C$ )을 크게 하고 있고 그 결과 외국인력 중 고급인력이 한국의 노동시장에 들어오게 하는 동기가 발생할 수 없다. 정책담당자나 기업의 경영자들은 외국인력은 저임금의 단순 노무자를 도입하는 것으로만 인식되어 있다. 정보화시대 또는 지식기반경제에 세계 각국은 물적자본외에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적자본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에 한국의 외국인 유입정책은 적절하지 않다. 예를 들어, 앞 절에서 논의한대로 일본의 경우 경제성장과정에서 자국의 노동시장을 최대한도로 폐쇄적으로 운영해오다가 1989년 소위 “입관법(入管法)”을 제정하여 전문적인 인력을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전문 및 숙련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또한 적극적으로 한국노동시장을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일이 필요하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명시적 규제를 수정해가는 일이 먼저 필요하겠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인식전환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전문인력 노동시장을 외국인에게 개방한다는 것이 소위 좋은 일자리의 손실로 보는 시각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보다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그러한 일자리에 채용됨으로서 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고 추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사고가 필요하다. 그러한 사고의 전환과 함께 필요한 것은 각종 제도 및 규제의 정비이다. 아래 <표>들에서 볼 수 있는 대로 전문외국인력의 채용시 어렵다고 지적한 것 중 첫 번째는 출입국 절차등의 행정규제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전문외국인력의 채용, 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첫 번째는 외국인의 체류를 까다롭게 하는 행정적 규제를 지적하고 두 번째는 언어장벽 등의 문화적 차이와 불편한 생활환경을 지적하였다. <표 3>은 이러한 요인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sup>22)</sup>

21) 예를 들어, 이규용외 4인(2005)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문외국인력의 활용계획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의 74%가 현상태유지라고 답하였다.

22) 이 표의 자료는 이규용외 4인 연구(2005)에서 인용함.

< 표 : 전문외국인력의 유치를 위한 개선점 >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은 편	다소 그러함	매우 그러함	가장 중요한 요인
언어장벽등 문화적 차이와 불편한 생활 환경	27(12.44)	77(35.48)	87(40.09)	26(11.98)	68(32.08)
낮은 임금수준	57(26.76)	120(56.34)	32(15.02)	4(1.88)	9(4.25)
기업 내 연구개발 능력의 부족	39(19.21)	103(50.74)	53(26.11)	8(3.94)	17(8.02)
외국인의 체류를 까다롭게 하는 행정적 규제	11(5.14)	46(21.50)	101(47.20)	56(26.17)	115(54.25)
기업 내 외국인에 대한 비우호적 분위기	80(37.91)	106(50.24)	23(10.90)	2(0.95)	3(1.42)

## VI. 결 론

본 연구는 외국근로자의 유입과 관련하여 기업 및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기업 및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는 단기적 분석에서는 이민잉여의 크기를 기준으로 논의 하였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외국인력의 유입에서 중요한 것은 비전문 ■ 비숙련 인력보다는 전문 ■ 숙련인력을 중심으로 유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외국근로자의 유입추세는 장 단기적으로 기업 및 국가경쟁력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조로중에 걸린 한국경제에 성장동력을 투입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는 양질의 외국인력을 이용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외국인근로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적이고 숙련된 양질의 외국인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필요한 것들은 행정적인 규제와 절차를 개선하는 것과 외국인근로자들이 국내에서 거주하면서 불편이 없도록 하는 일임을 지적하였다.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참고를 위하여 일부 국가들의 외국인근로자 유입정책을 요약하였다. 그 중 특히 일본과 싱가포르의 정책은 한국의 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컸었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에 외국근로자들을 선별적으로 유입하도록 하고 특히, 비전문 ■ 비숙련 근로자보다는 전문 ■ 숙련인력을 중심으로 유입을 장려하고 있었다. 그러한 정책은 국가경쟁력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저임금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최근 한국경제가 당면한 문제들 중의 하나인 외국인노동자들의 유입문제에 대한 정책과 일자리부족문제에 대한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경제정책과 달리 외국인노동자의 이민정책은 시행초기에 정확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올바른 정책을 수립해야만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고 혹시 부작용이 있는 경우에 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우리 한국경제에서 최근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정책에 대한 논의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정책의 수립이전과정에서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 린카정, 대만의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03,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외 4인, 전문기술인력노동시장분석, 2005, 한국노동연구원  
이구치 아스시, 일본 외국인 노동자정책: 새로운 전개와 향후 전망, 국제노동브리프, 2003, 한국노동연구원  
팡앵풍, 싱가포르의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노동브리프, 2003, 한국노동연구원  
Abowd, J. and Card, D., *Immigration, Trade and Labor Market*, Univ. of Chicago Press. 1991.  
Baker, M. and Benjamin D., "The Performance of Immigrants in the Canadian Labor Market"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94.  
Barro, R. and Sala-i-Martin, X., *Economic Growth*, Mcgraw Hill, 1995.  
Barro, R. J., "Government Spending in a simple Model of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1990.  
Benhabib, J and Mark M. Spiegel, "The Role of Human Capital in Economic Development: Evidence from Aggregate Cross-Country Data"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1994, 34 2.  
Borjas, G. "Self-Selection and the Earnings of Immi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87.  
\_\_\_\_\_,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1994, Dec.,  
\_\_\_\_\_, "The Economic Benefits from Immigration", *Journal of Economic*

- Perspectives, Vol.9, no.2, 1995.*
- \_\_\_\_\_, "The Intergenerational Mobility of Immigrant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93.
- \_\_\_\_\_, "Economic Analysis of Immigration", in *Handbook of Labor Economics 3A, Edited by Ashenfelter, Orley and Card, David, North Holland. 1999a*
- \_\_\_\_\_, Heaven's Door, *Immigration Policy and The American Econom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9b.*
- \_\_\_\_\_ and Freeman, R. eds, *Immigration and Work force: Economic Consequences for the United States and Source Areas.: Univ. of Chicago Press 1992.*
- \_\_\_\_\_ and Bronars, S.G., "Immigration and the Family"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91.
- Chiswick, B.R., "Is the New Immigration less Skilled than the Old?," *Journal of Labor Economics*, 1986.
- Ethier, W, "International trade and Labor Migr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85.*
- Fredberg, R. M, and Hunt, J.,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Host Country Wages, Employment and Growth",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9, no.2., 1995.*
- Feenstra, R., The Impact of International Trade on Wage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Hammermesh, D., *Labor Demand, Princeton Univ. Press. 1993.*
- Ireland P. N., "Supply-Side Economics and Endogenous growth",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3 1994*
- Katz, E. and Stark, O., "International Migration under Asymmetric Information", *Economic journal*, 1987.
- Lazear, E.P., "Diversity and Immigration", In *Issues in the Economics of Immigration edited by Borjas, G.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 Lucas, R.E., "On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22, 1988.*
- Mankiw, N.G., D., Romer, and D. Weil,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6, 1992.*
- Rebelo, S., "Long Run Policy Analysis and Long run Growt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992
- Snowder, D.J., "Converting Unemployment Benefits into Employment Subsidies",

*American Economic Review* 84, No.2 1994.

Solon, G. R. "Intergenerational Income Mobility in the United States," *American Economic Review*, 1992.

Topel, R. "Regional Trends in wag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1994.

Wright, R. and Maxim, P.S.,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nt Quality: Empirical Evidence from Canada,"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993.

Zimmerman, K F., "Tackling the European migration Proble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9, no.2., 1995.

## A Immigration Workers for the Competitiveness of Firms and Korean Economy

Chang-Kon CHOI\*

### Abstract

This paper address the foreign worker issues in terms of efficiency of firms and national aggregate economy. First, we attempt to measure the immigration surplus to see the effect of foreign workers on the firm's competitiveness. Next, employing the Solow and endogenous growth models, we examine the effect of foreign workers on the long run growth of economy. The result implies that high quality workers produce more immigration surplus and increase the rate of economic growth. The Solow model suggests that flow-in of foreign workers with less capital stock than domestic workers may decrease growth rate. The endogenous growth model with learning-by-investment tells us that while flow-in of foreign workers may increase growth rate, the growth effect are greater as they are endowed with higher level of capital. Based on the Roy model of immigration decision, we suggest that we need to reduce the entry costs of high quality foreign worker into Korea.

**Keyword :** Foreign workers, Immigration Surplus, Firms'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Immigration and Economic Growth, Roy model.

---

\*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Chonbuk National University